

별학(別學)의 탄생과 다원적 시민사회의 구상

—『별건곤』을 중심으로

김복순*

1. 국민국가 패러다임에서 다원적 사회로, 잡학에서 별학으로
2. 별학의 사상과 지식·감성의 재구성
 - 2-1 '취미 인간'의 발견과 '지식·사회 영역'으로서의 사생활
 - 2-2 '시선의 스와핑'을 통한 혼종적 리얼리티의 생산
 - 2-3 좌담회의 창출과 상호주체성의 파트너십
3. '계급운동 취미 버전'의 공/과

국문요약

『별건곤』(또 다른 세상이란 뜻)은 한국잡지사상 사생활 영역을 제일 먼저 이론화 하고 다양한 기획을 펼쳐 보인 잡지였다. 계급운동의 활로가 막히자 천도교 청년당 핵심인물들은 다원적 시민사회를 구상하면서, 계급운동의 취미 버전에 해당하는 '별학'의 탄생을 보여 주었다. 별학은 '비상(非常)적' 지식·학문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민중성, 대중성, 시민성, 개인, 개성, 문화, 사생활 등을 키워드로 하는 새로운 관점의 지식·담론체계이다.

식민지 조선의 '국민' 주체는 별학 사상에 의해, 단일한 국민 주체에서 비균일적이고 계층의 복잡한 행위성이 전제되는 '취미 인간' 주체로 변환되었다. 취미 인간이 발견되면서 하층사회가 내부에서 포섭되어 가시화 되었으며, 대중시민사회의 공론장이 마련되고 있었다. 반식민지인

* 명지대교수

중국이 ‘잡학’으로 ‘분과학문-서양 문명체계’를 벗어나려는 의도를 가시화했다면, 『별건곤』의 식민지 조선은 ‘개별성’에 기초한 취미론으로, 미미하나마 ‘식민성 부정’의 논리를 제시하고 있었다.

사생활 영역은 『별건곤』이 만들어낸 새로운 ‘사회’ 영역이다. 공적 영역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적 영역의 탄생’을 의미하며, 이는 『별건곤』의 공적 가운데 하나였다. ‘유일’ ‘무이’의 잡지 『별건곤』이 ‘사생활’을 만드는 방식은 이처럼 지식 범주로 자리매김하면서, ‘새로운 사회’로 위치시키는 방식이었다.

별학 사상은 또한 다양한 시선을 차용하여 혼종적 리얼리티를 창출해 내었다. 시선의 다양화는 일면의 리얼리티를 거부하고, ‘사회’를 다면적으로 보게 하였으며, ‘시선의 스와핑’을 통해 지식인보다 대중, 시민들의 시각을 보여줌으로써 시민사회 창출의 중요한 매개가 되었다.

또한 좌담회라는 새로운 담론형식을 창출하여 다양한 신분, 계층이 참여하는 ‘상호주체성의 파트너십’을 보여 주었다. 다양한 대중을 독자층으로 포섭하면서 리터러시의 기준을 변경시켰을 뿐 아니라 혼종적 리얼리티를 창출하고자 했다.

‘넌센스-풍자’마저 어려워진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별건곤』은 더 이상 ‘넌센스-풍자’의 건강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황색화 되어 간다. 황색화는 1930년대 후반 ‘명랑화’의 기반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부정적 평가를 면키 어렵다.

(주제어 : 별학, 잡학, 취미인간, 사생활, 시선의 스와핑, 좌담회, 혼종적 리얼리티, 상호주체성, 파트너십, 천도교 청년당)

1. 국민국가 패러다임에서 다원적 사회로, 잡학에서 별학으로

근대초기에 ‘학문’ ‘지식’ 개념은 문사철을 바탕으로 한 통합적 지식체계에서 분과학문적 체계로 분화되는 과정에 놓여 있었다. 이 과정에서 문학과 학술은 분리되었고, 학술 내부에서도 상대적으로 독자적이고 분과학문적인 체계가 형성되었다. 소위 개화기 학술지로 불리는 『기호홍학보』 『태극학보』 『서북학회월보』 등은 이러한 학문 분화 과정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근대초기나 그 이전 할 것 없이 학술담당층은 일정하게 제한되어 있었다. 1900년대까지도 학술담당층은 개신유학자를 포함하여 중인층 정도까지 포함될 뿐이었고, 1910년대 이후에도 그 범위가 다소 확산되었을 뿐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외국유학생 외에 신교육을 받은 국내 신지식층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학술담당층이 크게 확산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분과학문적 지식이 새로운 지향으로 언급되는 시기에 ‘잡학(雜學)’으로 불리는 통섭적 학문 체계 및 학문태도¹⁾를 고집한다는 것은 새 시대의 열망을 담아내지 못함은 물론 시대적 소명에서도 뒤처지는 지식인임을 자처하는 것이었다. 잡학은 학문의 정도(正道)라고 여겼던 체계에 속하지 않는 박물학적 지식을 이르는 것으로서, 박학을 의미하긴 했지만 단순히 다양한 것을 모아놓은 것만은 아니다. 지식의 탈권력화와 지식의 재구성을 통해 당대의 주류적 사상이나 지배제도에 대한 반항 및 해체의 함의를 담고 있는 학문 실천을 의미한다.²⁾ 식민지 조선의 경우 1910년대의 『학지광』 『청춘』을 비롯하여 1920년대의 『개벽』 『조선문단』 등 소위 당대에 유의미성을 자타간 인정했던 잡지들에서도 주류는 분과

1) 홍준형, 『周作人の ‘잡학’과 지식의 통섭』, 『중국문화연구』 18집, 2011, 197-224쪽.

2) 홍준형, 위의 글, 205-206쪽.

학문적 경향의 신학문이었지 잡학성이 아니었다. 제1차 대전과 러시아 혁명 이후 전 세계에 불어닥친 ‘개조’의 선풍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조선의 경우 분과학문적 신학문 지향이었지 통섭적 학문지향은 아니었다.

이러한 경향을 깨트린 것은, 약간 다른 방향에서이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대중잡지 『별건곤』이었다. 경성이 근대도시로 탈바꿈하여³⁾ 진기하고 낮선 볼거리로 넘쳐나기 시작한 1920년대 중반, ‘취미잡지’를 표방하고 나선 『별건곤』에서 지식이라 함은 무엇을 일컬었을까. ‘무산계급의 읽을 거리’ 또는 ‘에로 그로 년센스’의 오락거리라 불렀던 『별건곤』은 논자에 따라 전자로도, 후자로도 언급된다. 얼핏 보기에다 형용모순인 위의 두 해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926년 11월 창간된 『별건곤』은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종합지로서 여러 가지 의미를 창출한다. 『개벽』의 폐간과 더불어 발간된 『별건곤』은 개벽사에서 여러 번 밝혔듯이 『개벽』의 후신은 아니었고,⁴⁾ 새로운 기획에 따라 태어난 ‘별종’의 잡지였다. 잡지 『삼천리』를 진정한 의미의 근대적 대중잡지로 평가하기도 하나, 『별건곤』은 1926년 11월에, 『삼천리』는 1929년 6월에 창간되어 창간 시기에서도 앞서며, 성격상으로도 명백한 대중잡지에 속한다. 일부에서는 『별건곤』을 ‘민중오락을 위한 읽을 거리’라 보면서 『삼천리』야말로 이와 달리 ‘정치 군사 국제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방면에 걸친 것이었으며, ‘빠르게 발전 분화하던 사회 제 분야의 지식의 새로운 배치가 일어났다’⁵⁾고 본다. 하지만 『별건곤』은 ‘민중오락을 위한 읽을거리’로 제한하

3) 손정목, 『일제강점기 도시사회상 연구』, 일지사, 100-101쪽.

4) “우리는 벌써 1년이나 전부터 취미와 과학을 가추인 잡지 한아를 경영해야 보자고 생각하였었다...이제 별건곤이라는 취미 잡지를 발간하게 되었다. 물론 개벽의 후신으로는 언론잡지의 출원이 허가되는 대로 또 편집을 시작하려니와”(창간호 『여언』) 등.

5) 천정환, 『초기 『삼천리』의 지향과 1930년대 문화민족주의』, 『민족문화사연구』, 2008, 207쪽.

지 않았으며, 『삼천리』와 마찬가지로 정치 국제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방면에 걸쳐 기사를 다양하게 싣고 있었다. 『별건곤』을 ‘민중’계급의 오락거리로 보는 시각은 잡지 전체를 파악하지 않고, 창간호에 소개된 취미론 특집 중 『貧趣味症 慢性的 朝鮮人』에 나오는 무산대중, 민중, 노농대중의 단어에 집착한 결과로 해석된다. 碧朶의 글에서 무산대중, 민중, 노농대중은 계급적 개념이라기보다 당대 사회의 일반 ‘대중’에 더 가까우며, ‘가난한 ‘대도시’ ‘조선사회’의 ‘취미생활 없는’ 대중들이 ‘대도시인’으로서⁶⁾ ‘인간적으로’ 당연한 권리인 ‘취미생활’을 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취미가 부속된 생활이라야 대도시로 집중한 대중들의 의의있는 생활이라는 것이다.

『별건곤』은 당대 그 어느 잡지와도 다른 차별성을 지향한다. 당대 거개의 잡지들이 표방했던 거대담론과 일정하게 결별하면서, 대중·시민사회에 대한 구상을 밝힌다. 권두언, 창간사를 생략한 것도 ‘계몽’이라는 딱지를 떼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자의반 타의반이지만⁷⁾ 물(沒)한 개혁을 대신하여,⁸⁾ 다원적 시민사회를 지향하는 여러 기획들을 제시한다. 인간이 성적 본능, 물적 본능, 명적(名的) 본능 뿐 아니라 사교본능의 존재임을 주장하면서,⁹⁾ 1920년대 중반까지 식민지 조선의 그 어느 잡지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개인의 ‘구

6) 이에는 여성도 포함되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개혁사에서 먼저 발행하고 있던 『신여성』은 『별건곤』이 창간된 1926.11에 휴간되는데, 개혁사는 이에 대해 『별건곤』이 이를 모두 포함키로 했음을 밝히면서, 『별건곤』 2호부터 ‘여성란’이란 이름의 특집이 마련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 설명한다(제2호 『사고』, 참조). 즉 『별건곤』은 여성을 포함한 ‘모든 대중’들의 잡지임을 언표하는 것이다.

7) 『개혁』의 폐간이 『별건곤』의 창간을 가속화 했다는 의미이다.

8) 『편집후기』, 30호(1930. 7)

9) 碧朶, 『貧趣味症 慢性的 朝鮮人』, 『별건곤』 창간호, 57쪽. 창간호 특집 중 가장 중요한 ‘취미론’ 특집의 선두 논문이다.

구불일(區區不一)'을 강조하면서 '대도회'에 사는 대중들을 존재론적으로 재규정 하였을 뿐 아니라, 1920년대 중반까지 그 어느 학술운동도 해 내지 않았(못했)던 '취미지식'을 새로운 지식의 패러다임으로 체현해 내 고자 하였다. 창간 당시의 '취미 지식' 개념¹⁰⁾은 '교양의 함의를 지니며, 계급·신분을 막론하고 인간 전 존재에 내재한 본능과 연관되어 있다.

『별건곤』은 '잡학' '잡조'이면서도 '잡학'에 머물지 않는 '별학'의 탄생을 보여준다. 단순한 잡학이 아니라 '비상(非常)적' 지식·학문체계를 의미한다. 창간호부터 '잡조(雜組)' 코너가 선보이는데, 창간호에는 「상식과 잡조」, 3호에는 「사회·잡조」, 4호에는 「사회·잡조」, 「취미·잡조」 기획란이 마련된다. '기상천외 잡조란 예고'¹¹⁾란 홍보문구가 시사하듯, 기상천외한 재미를 선사하는 것이지만 황색지에서처럼 저질적인 것은 아니다. 「북대기자의 탐사활동기」, 「현대조선의 7불가사의」, 「**국 탐방기」, 「결혼실패가 열전」 등이 잡조의 예로서, '새롭게 본다' '다시 본다'는 의미를 띤다. 반란을 소개하는 것도 미약한 조선의 당대를 형성케 한 제국면을 성찰적으로 접근해 본다는 뜻이다.

중국에서 개념화되었던 잡학이 근대초기 이전에는 세속적 학문(전통 학문)에 대한 대타향으로,¹²⁾ 근대초기 이후에는 분과학문에 대한 대타향(통섭적 학문)으로 설정되었다면,¹³⁾ 『별건곤』의 '별학'사상은 전자(전

10) 『별건곤』은 1930년 전후를 계기로 논조가 바뀌면서 잡지의 성격도 황색지와 유사하게 '에로 그로'를 부각시키는 등 변하기 시작한다. 1929년 말의 『삼천리』의 창간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고, 1931년 1월 『신여성』 복간, 1931년 3월 『혜성』 창간으로 각 잡지의 특징을 선명하게 부각시키려는 의도 하에, 특히 『혜성』 창간 후에는 판형도 4·6배판으로 바뀌고 50면 안팎으로 줄어들면서(5전 잡지) 황색잡지화의 길을 걷는다.

11) 창간호(1926.11), 79쪽.

12) 순위, 김영문·이시할 옮김, 『무신과 저우쭈어린』, '독서취향' 하장 및 267-277쪽 참조.

13) 홍준형, 「주작인의 '잡학'과 지식의 통섭」, 『중국문화연구』 18집, 2011, 참조.

통, 통섭적)의 요소는 갖고 있으나, 후자(분과학문적)의 요소는 강조하고 있지 않다. 개성주의·비정통·다양화·세속적 가치에의 반역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대중, 시민적 관점¹⁴⁾을 우선성으로 하여 그들의 개성과 자유, 문화적 권리에 주목한다는 점에서는 잡학과 차이가 있다. 또 '별의 별'것을 강조한다는 점에 잡학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으나, 잡성(雜性)에 그치지 않고 '차이(別)를 부각시킨다.¹⁵⁾ 잡성으로부터 인간성의 본질적 요소를 추출하면서, 개인성에 비롯되는 '취미' '사생활'을 또 하나의 공적 영역(공적 지식)으로 설정하고 천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르다. 따라서 기존의 '잡학'개념으로 포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르다. 별학은 대중성, 시민성, 개인, 개성, 문화, 사생활 등을 키워드로 하는 새로운 관점의 지식·담론체계이다.

'또 다른 세상'(별건곤)¹⁶⁾이라는 낯선 잡지 제호 뿐 아니라 곳곳에 기획과 칼럼으로 제시된 '별의 별' '별세계' '진귀' '漫談' '漫話' 등을 포함하여, 野史에 대한 재인식, 사건사·집단사로서의 역사가 아닌 개인의 기억에 대한 새로운 포착을 통한 역사 개념의 수정, 구구불불적 존재인 인간 개개인의 일상과 체험에 대한 사회성 존중, '지역'(서울/지방의 이분법이 아니라)으로서의 민간의 생활 풍속과 정서의 발견, 풍자와 해학으로 대표되는 심미관의 발명과 취향, 지식 재구성 방식으로서의 '좌담'의 사상과 형식 실천 등은 '별학'의 키워드를 통해 기존 지식의 탈권력화를 추구함은 물론 새로운 지식의 재구성을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시킨다.

14) 민중, 무산계급, 대중, 시민이란 개념이 아직 분리되어 있지는 않은데, 네 범주가 '도시성'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15) "人間の 裏面은 各樣各色입니다. 富村의 봄이 다르고 貧村의 봄이 다르며, 地主의 몸이 다르고 小作人의 몸이 다릅니다. 男子의 몸과 女子의 몸이 다르고 老人의 몸과 少年의 몸이 다릅니다. 春坡, 『都會의 春과 農村의 春』, 6호(1927.4), 75쪽.

16) 창간호에서 밝힌 바, 『개벽』의 후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또 다른 개벽'의 뜻은 아니다. 실제로 66호(1933.10)에서는 '별세계'라 언급하고 있다. 22쪽.

『별건곤』에 대해 기존연구에서는 취미담론, 역사담론, 사생활의 공론장, 직업관련기사, 산책자 등의 키워드와 관련하여 검토되었으나¹⁷⁾ 깊이 있게 논의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별건곤』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논문은 여태까지 없었다. 본고에서는 『별건곤』의 자각적 비주류의, 이단적 지향, 非常線의 돌파¹⁸⁾를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1920년대 중반 식민지 조선의 새로운 ‘사회’ 구성 및 탈식민적 지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지향은 무장투쟁으로서의 독립운동 및 식민자 암살 등의 거대담론 차원에서의 운동과는 ‘아주 다른’ 탈식민적 지향이며, ‘국민국가’ 패러다임으로부터 벗어나¹⁹⁾ ‘사회’ 범주를 우선성으로 상정²⁰⁾할 때 가능한 것이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17) 이경돈, 『『별건곤』과 근대 취미독물』, 『대동문화연구』 제46집, / 김진량, 『근대잡지 『별건곤』의 취미담론과 글쓰기의 특성』, 『어문학』 제88집, 2005. / 천정환·이용남, 『근대적 대중문화의 발전과 취미』, 『민족문화사연구』 30집, 2006. / 이경옥, 『민족담론과 취미담론의 관계성 연구』, 광운대 석사논문, 2009. / 이승윤, 『『근대 대중지 역사 수용 방식과 글쓰기』, 『한국문화논총』 제56집, 2010, 5-35쪽. / 박숙자, 『1920년대 사생활의 공론화와 젠더화』, 『한국근대문학연구』 7권 1호, 2006. / 조미희, 『『별건곤』의 직업관련 기사』, 『한국언어문화』 41, 2010. / 권채린, 『산책을 둘러싼 대중담화의 지형도- 별건곤의 경우』, 『어문연구』 40권 2호, 2012.

18) 73호(1934.6), 12-17쪽. 여기서는 『별건곤』의 특징을 ‘비상선’이라 언급한 후 특집을 구성해 제시하고 있다.

19) ‘국민국가를 경험해 본 바가 없다’ 하여 그 패러다임조차 없는 것은 아니다. ‘선실력양성 후독립론’ 각종 ‘문화기획’, 아나키즘론, 무산혁명론 등은 일종의 국민국가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20) 이 시기는 이미 ‘사회’ 개념이 확고히 자리잡은 상태였다. 1900년 전후 ‘집단’을 의미했던 ‘사회’ 개념은 1920년대 중반에 이르면 ‘국가’를 대신할 새로운 범주로 상정되기에 이른다. 김현주, 『사회의 발견』, 소명출판, 2014, 참조.

2. 별학의 사상과 지식·감성의 재구성

2-1. '취미 인간'의 발견과 '지식·사회 영역'으로서의 사생활

『별건곤』의 공적 가운데 하나는 '취미 인간'을 발견하고 지식개념을 확장했다는 점이다. 취미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황성신문』 1899년 7월 7일자 제153호 논설 이후인데,²¹⁾ 『별건곤』에 이르면 취미 개념은 '인간의 본질·본능'으로 파악되기 시작하면서, '취미 인간(호모 테이스트쿠스)'의 발견을 이루어낸다. 창간호의 '취미론' 특집은 이를 잘 보여준다.

① 여기에서 人間性·····人類의 本能을 차저내지 아니할 수 없다. 人類는 本來 社交的 動物이다. 群衆生活을 하여야 되는 本能을 가지고 있다...(중략)... 人間本能에는 性的 本能, 物的 本能, 名的 本能이 있는 맞게 社交本能이 있는 것을 이저서는 안 되겠고...(중략)... 衆과 더부러 보고 듯고 말하고 놀고 먹고 마시고 하는 道程일 것이다. 이 社交心理를 滿足식함에는 '趣味'가 만흔 群衆生活이라야 된다. ...(중략)... 生活한다는 것만이 生活이 아니고 慰安과 趣味가 附屬된 生活이라야 意義 있는 生活이라 하겠다.²²⁾

② 스스로 自體의 趣味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蜉蝣는 蜉蝣의 趣味를 가지고 있는 同時에 大鵬은 大鵬의 趣味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大宇宙의 大藝術感이다. ...(중략)... 한번 無名에 돌아갔다가 다시 有名을 創造하는데서 새 人間과 새 世上이 나와질 것이다. 이 점에서 白馬非白이란 한 詭辯도 人間の 創造의 趣味를 돕는데에 큰 效力이 생길 것이다. 人間은 趣味다. 趣味에서 모든 高尚한 創造力

21) 근대 초기 취미론의 수입 및 용례에 대해서는 문경연, 「식민지 근대와 취미 개념의 형성」, 『개념과 소통』 7호, 2011, 35-71쪽 참조. 일본에서는 1900년대 잡지 『취미』가 발간되면서 대유행하였는데, 쓰보우치 쇼요(坪内逍遙)에 의하면 이 용어는 칼라일의 taste의 번역어라 한다. 진노 유키, 문경연 옮김, 『취미의 탄생: 백화점이 만든 테이스트』, 소명출판, 2008, 1장 참조.

22) 碧朶, 「貧趣味症 慢性的 朝鮮人」, 『별건곤』 창간호, 57-58쪽. 이하 원문의 띄어쓰기는 현대용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이 나오는 것이다.

要件대 大宇宙의 存在는 보는데 峙라 一種 趣味의 表現으로 볼 수 있다. 大鵬이 空中에서 노는 것이나 理致가 現實로 나타나는 것이다. 無名이 有名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모두가 一種의 趣味로 볼 수 있다.²³⁾

이돈화가 ‘인간은 취미’라고 존재론적으로 접근하면서 각 개인의 고유한 권리로서의 ‘취미’를 언급했다면, 벽타 역시 사교본능으로서의 취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취미는 단순히 저급한 오락거리, 소일거리의 개념이 아니다.²⁴⁾ 몇몇 연구자들이 언급한 것처럼 계급적 관점이 아니라, 존재론적 관점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별건곤』이 무산계급적 또는 민중적 계급 관점에 입각해 창간되었다고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벽타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군중생활을 할 수 밖에 없으며, 그러한 생활은 사교본능이 있어야 가능함을 역설한다. 취미가 부속된 삶이라야 ‘참 삶’이라 언표하는데, 이돈화는 더 나아가 ‘인간=취미’의 등식화를 이끌어낸다. 백마비백(白馬非白)이라 해도 그것이 백가의 특징이고, 취미임을 항변한다. 취미는 개인적 특징, 즉 개성을 이끌어 내는 매개이며 그 개성에서 창조력이 발휘된다고 함으로써 취미의 효력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주의 모든 존재는 취미의 표현이 된다. 취미를 개인의 정체성 및 개성과 연관지어 해석하면서, ‘보고 듣고 말하고 놀고 먹고 마시고 하는 道程’의 각 개인의 감성적 차원으로 의미화 하고 있다. 천도교 내 제1이론가였던 이돈화는 포이에르 바하의 ‘사람론’의 영향을 받아 종교론을 거쳐 사회사상론으로 나아가는 바, ‘사람성주의’로 요약되는 인간론²⁵⁾에서 ‘사람에게는 무궁성과 창조충동이 본

23) 夜雷, 『大宇宙와 趣味』, 창간호, 62-63쪽.

24) “趣味라고 無責任한 讀物만을 느러 宥는다든지 혹은 放蕩한 娛樂物만을 記事로 쓴다든지—등 卑劣한 情緒를 助長해서는 아니될 뿐 아니라 그러한 趣味는 할 수 있는데로 撲滅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趣味 雜誌를 시작하였다.” 창간호, 『여언』, 153쪽.

성으로 작동하다고 보았다.²⁶⁾ 이돈화는 바로 이 무궁성과 창조성을 발휘케 하는 것을 취미라 보았던 것이다.

여기서 보듯 ‘취미 인간’은 전과는 다른 인간관에 기초해 있다. 우선 ‘취미 인간’은 개인의 전면적 등장을 전제로 하며, 개인의 사적 삶에 대한 인식 전환의 결과 비롯된 것이다. 여기서 취미는 인간 존재의 ‘본질’이자 ‘본능’이며 또한 ‘권리’가 된다. 다시말하자면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본능’과 관련한 감성적 존재이기도 하다는 사실의 발견이 ‘취미 인간’의 탄생을 가능케 했다고 할 수 있다. 각 개인의 사생활은 자신과의 비교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성적, 감성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국민국가 패러다임에서 개인은 주로 국민국가를 위한 도구적 존재였으며, 그들이 연마해야 하는 지식도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취미 인간’은 취미 본능을 지닌 개인들의 사생활을 포함한 인간의 깊은 내적 차원까지를 연구대상, 발언대상으로 하기에 글쓰기 및 말하기의 범위를 무한정으로 확장시켜 줄 뿐 아니라 필연적으로 ‘재미화’를 유도한다. 지식인, 문사, 무산계급,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별건곤』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²⁷⁾

‘호모루덴스’와 다른 점은, 호모루덴스가 인류의 문화를 놀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면서 ‘놀이하는 인간’으로 규정하는 ‘행위’ 중심의 해석이

25) 이돈화는 1920년대 중반 천도교청년당 신파로 갈라진다. 천도교 구/신파의 사회사상적 차이 및 학문론에 대해서는 후속논문에서 고찰할 것이다.

26) 이돈화, 『시대정신에 합일된 사람性주의』, 『개벽』, 1921.11 ; 허수, 『이돈화연구』, 역사비평사, 2011, 참조.

27) “별건곤이 세상에 나오자 의외에도 상상 이상으로 환영 대환영을 바다서”(2호, 『편집실 방송』), “『별건곤』 2호야말로 조선서 잡지가 생긴 후 처음 보았다고... 칭찬과 귀염을 바다서 만족 대만족을 하였습니다.” “각 책사에서 책 더 보내라라는 전화, 지방서도 책더 보내라는 주문장에 대 분망”(3호, 『편집실 방송』), 7월호는 실로 誌界 空前의 대 호평, 5일 만에 절판되었다(8호), 편집실 보관본도 없다(9호), 독자 백만(47호, 1931.1) 등 참조.

라면, '취미 인간'은 인간의 '본질' 중심의 해석이다. 둘 다 놀이와 취미를 정신활동이자 창조력의 원천으로 본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호모루덴스가 실제적인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라면, 호모 테이스트쿠스는 '실익'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호모루덴스에서 놀이는 그 자체로 합목적적인 것으로서 특정한 목적과 생산을 위한 도구적 개념이 아니다. 하지만 이돈화를 비롯한 『별건곤』 논자들의 '취미' 개념은 '실익'이 있는 것으로서 유효성을 지닌 것이다. '취미와 실익 잡지'라고 표명한 바, 여기서의 취미는 '교양지식'에 가까운 것이어서, 실익이 있는 것이다. 언뜻 보기엔 형용모순 같아 보이는 '취미와 실익'이라는 두 단어의 결합이 가능했던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일본과 달리,²⁸⁾ 취미를 교양·지식으로 내포하는 것으로서, 취미는 계몽의 한 분야였다.²⁹⁾ 따라서 『별건곤』이 '계몽에서 취미로 이행'했다고 보는 것은 온당치 않다. '취미 지식' '지식과 취미'(2호)는 "대중 취미의 이상세계를 개척하자"³⁰⁾는 모두 아래, 취미를 지식 범주 하에 포함시킨 사례들이다. 상식과 사회가 잡조와 더 빈번히 연동하여 '상식과 잡조'(1호), '사회·잡조'(3호, 4호)라 했다면, 취미는 지식 개념과 더 연동했다.

취미 지식은 기존의 학문지식 외에 생활지식(실용지식, 과학지식), 세계사 및 자국사, 그리고 사회 각 방면의 사람에 대한 지식 및 각 개인의

28) 일본의 경우 메이지 시대에 등장한 취미는 다이쇼 시대를 거치면서 예술에 대한 미적 가치관, 일상생활에서의 호불호의 판단, 오락이라는 세 층위의 의미로 정착되었다고 한다. 진노 유키, 문경연 옮김, 『취미의 탄생: 백화점이 만든 테이스트』, 소명출판, 2008, 6쪽.

29) 『청춘』 1권(1914.10)에 실린 『고본 춘향전』 광고, 『매일신보』 1914.1.13.자의 혁신단 공연 광고, 『신문계』 제3권 1호(1915.1)의 『편집실에서』에는 취미를 실익과 연동하여 논하는 내용이 나온다. 문경연, 『식민지 근대와 취미 개념의 형성』, 『개념과 소통』 7호, 2011, 43쪽의 각주 21) 참조.

30) 『투고대환영』, 3호(1927.1)

사생활 지식까지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쓰였던 학문적 지식이라 하지 않고 굳이 ‘취미 지식’이라 개념을 확장한 것은 『별건곤』의 차별화된 매체전략이기도 했지만, 대중시민사회를 기획하는 『별건곤』의 ‘개인’에 대한 인식이 제고된 때문이기도 하다.³¹⁾ 개인적 삶에는 공적 삶 외에 사적 차원의 삶도 있는데, 공적 삶 외의 제 양상은 이제까지 제대로 공론화된 바 없다는 성찰적 반성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별건곤』은 ‘취미로서의 사생활’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지식’ 범주로 확장하여 개념화 시킨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공적 영역(political public sphere)이 발생한 것은 19세기 말³²⁾이었는데, 이때의 공적 영역은 ‘국가에 기초한 권위(estate-based authority)’의 영역이었다. 근대적 의미에서 ‘공적’라는 말은 사적인 개인들의 ‘보편적 접근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공적영역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공공복리와 관련되는 것이어야 한다.³³⁾ 이러한 공적 영역을 추동한 것 중 또 다른 하나는 미디어(인쇄매체 포함)로서, 의사소통 행위의 급진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의사소통은 사회에 대한 체계적 이미지를 각각의 개인에게 배분한다. 즉 의식 속에서 인간 사회를 재구성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별건곤』은 안잡자기, 여직공, 기생, 차부, 요리업자, 신문배달부, 전

31) 각인각색, 백인백색, 천인천색은 『별건곤』의 칼럼란 제목들이다. 대부분 대봉대로 부유는 부유대로의 개성과 정체성을 지녔으며, 설사 백마비백일지언정 그 또한 훌륭한 취미일 수 있다는 논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신분, 계급, 성별을 막론하고 각기 부유대로 대봉대로의 정체성과 개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각각 생각과 감성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에서 『별건곤』은 그들 각인각색, 백인백색, 천인천색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다.

32) 독립협회의 입헌군주제 추진과 관민공동회의 의회설립운동이 이에 해당한다고 연구되었다. 신용하, 『독립협회연구』, 일조각, 1976, 참조.

33) 하버마스, 『공론장의 구조변동』, 한승완 역, 나남출판, 2001, 93쪽.

차감독, 점원 등 대도시 하층계급 시민을 호명하여 그들을 사회구성원으로 위치시키면서 소통하고자 했다.³⁴⁾ 『별건곤』에서 이들은 글쓰기·말하기의 ‘대상’에서 소통의 ‘주체’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열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주체화 하였으며, 사적 개인인 자신들의 생각을 공적 담론장에 게재함으로써 논의의 장을 만들었다. 공적 논의를 통해 상호이해를 추구하면서 갖게 된 경험은 그들을 더욱 주체화 하는 주체성의 원천이 되었다. 점원, 신문배달부, 여직공, 여급, 싸 쏘이, 선술집 주인, 목욕탕 주인, 급사들의 삶의 구체적인 면들은 지식인 계층 및 상층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하층’으로부터 ‘상층’이 재구분되고 있었다.

이전 잡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러한 노력들이 『별건곤』에서는 종간호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드러나 있는 바, ‘또 다른 세상·다원적 시민사회’를 만들려는 『별건곤』의 기획의 소산이다. 아직 민주주의적 가치가 정착된 사회는 아니었지만, ‘신민’과 구별되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공공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시민’이라 정의한다면,³⁵⁾ 『별건곤』의 위와 같은 노력은 당대의 구성원들을 시민으로 호명하는 기획에 다름 아니다. 지식인 이외의 평범한 사람들을 의사소통의 주체로 불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지배층만의 일원적

34) 『각계 각인 10년 회고』, 25호(1930.1), 52-63쪽. 작가·신문기자 등 지식인 외에 시민들이 대거 필자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낸다. 『우리가 본 그이들』(63호, 1933.4)에서는 여급, 싸 쏘이, 선술집 주인, 목욕탕 주인, 급사 등이 기자, 소설가, 독립운동가, 교사 등을 직접 관찰한 바를 서술한다.

35) 3·1운동은 citizen(citoyen)에 준하는 시민적 의식이 출현한 계기로 설명되며, 형평운동에 대한 『개벽』의 논평(일 기자, 『개조평단』, 『개벽』59호)에서는 시민계급과 시민, 시민적 생활에 대한 표현이 등장한다. 『개벽』 편집진이 그대로 옮겨 온 『별건곤』에서도 시민·시민계급에 대한 위와 동계의 의미망이 이미 자리잡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민·인민·시민 개념에 대해서는 박명규, 『국민·인민·시민』, 한국 개념사총서 4, 소화, 2009, 177쪽 이후 참조.

사회가 아닌, 다원적 사회를 구상하는 여러 면모를 드러낸다. 1900년대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1910년대의 『청춘』 『학지광』, 1920년대의 『개벽』 등 지식인 공론장에서는 배제되어 있던 하층계급이 『별건곤』에 이르러서는 공론장의 다원화를 가져온 것이다. 물론 위의 신문·잡지들에도 독자투고란 등이 있었으나 매우 드물게 허용된 것이어서, 『별건곤』에서처럼 빈번하게 하층계급이 글쓰기·말하기의 주체로 등장한 것은 아니었다. 다시말하자면 『별건곤』은 ‘지식인-권력화’라는 일원적 체계는 아니었다. 대중, 하층계급들이 지식인과 함께 동참하는 ‘다원적’ 체계였으며, 따라서 적어도 중반까지는 서구에서와 같이 대중·하층계급이 ‘문화소비자’로 전락한 것도 아니었다.³⁶⁾ 일본에서는 1870년대부터 이러한 다원적 시민사회론이 등장하였는데, 주로 ‘여성·가족’을 대상으로 출발한 것이라면,³⁷⁾ 『별건곤』의 경우는 일본과 달리 다원적 시민사회에 대한 구상이 하층계급과 더불어 시작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쪽 구석에서는 ‘취미의 계몽’을 설파하고 있었다. 즉 다원적 시민사회를 구상하고 있었지만 아직 국민국가 패러다임을 완전히 폐기한 것은 아니었다. 고려, 조선 역사에 대한 재인식을 의미하는 각종 기획들, ‘반란에 대한 재해석’들은 아직도 국민국가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한 『별건곤』의 모습을 보여준다. 즉 식민지 조선에서 취미는, 일본에서와 같이 소위 ‘미쓰코시 취미’라는 단어에서 보듯 백화점이라는 소비의 장으로 수렴되지³⁸⁾ 않았다. 연이은 ‘조선자랑’ 특집에서 보듯 ‘문화투쟁(자본)’의 의미로 전락화 되어 간접적인 저항의 장으로 수렴되었

36) 서구에서는 ‘국가의 사회화’ ‘사회의 국가화’가 진행되면서 공론장이 권력화 되고, 사적 개인들은 점차 ‘문화소비자’로 전락한다. 하버마스, 『공론장의 구조변동』, 268-287쪽.

37) 福吉勝男, 『福澤諭吉と多元的‘市民社會’論』, 世界思想社, 2013.

38) 진노 유키, 문경연 옮김, 『취미의 탄생: 백화점이 만든 테이스트』, 소명출판, 2008, 5쪽. 일본의 경우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해 ‘소비와 주로 연동한다.

다. 취미 개념이 '오락·여기'라는 합의보다 지식 범주에서 교양으로, 간접적인 저항의 장으로 활용된 것은 한국의 특수성이다. 즉 취미를 통해 '민족적' '사회적' '차이'를 확인받음으로써 식민성을 파편화 시키는 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것이다. 취미는 타인과 다른 개별성을 보장해 줄 뿐 아니라 동시에 심미적 개체여서 '고유성' '독자성'을 갖는다. 취미는 식민지 조선에서 은폐될 수밖에 없었던 독자성을 환기해 주었다는 점에 미약하나마 간접적 저항의 장으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취미 인간'이란 보편성 속에서 '식민지 조선'이라는 '집단적 사회성'이 독자적 자율성을 지닌 영역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별건곤』은 공동체/개인의 이분법을 해체하면서 '사생활'을 하나의 '사회' 영역으로 만들고 있었다. 당시는 공동체의 사회성이 약화되지 않고 여전히 강조되고 있었고, 일상생활의 또 다른 형태인 가정생활이 아직 사생활의 중심점이 되지 못한 상태였다. 가정은 아직 외부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감성적 관계가 형성되는 애정의 장소로 확고히 자리잡지 못한 상태여서 사회성을 약화시키지는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사생활 영역은 남녀 명사들을 비롯한 지식인 그룹의 개인적 삶이³⁹⁾ 초점화되거나, '신문에는 나지 않는' 숨은 뒷 이야기, 정사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민중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야사, 시시각각 움직이는 현장의 이야기들을 모두 '지식'으로 등재하고 있었고, 이는 나중에 '유용한 생활(과학)지식'의 형태로 실용화 되기도 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취미는 '대중지성'을 생성하는 매개가 될 수 있다.⁴⁰⁾

39) 부부간의 가정생활이 드러나는 경우는 이광수 허영숙 부부처럼 둘 다 사회적 명사일 경우로 제한된 편이었다.

40) 천정환, 「근대적 대중문화의 발전과 취미」, 2006, 227-265쪽. 천정환은 필자와 같이 취미를 '지식 범주'로 보지는 않았지만, 취미가 대중지성을 생성하는 매개라 본 점에서는 필자와 일치한다.

사생활 영역은 『별건곤』이 만들어낸 새로운 ‘사회’ 영역이다. 공적 영역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적 영역의 탄생’을 의미한다. 이는 『별건곤』의 공적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사생활’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각 사회마다 다르지만,⁴¹⁾ ‘유일’ ‘무이’의 잡지 『별건곤』이 ‘사생활’을 만드는 방식은 이처럼 한편으로는 지식 범주로 자리매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회’로 위치시키는 방식이었다. 정사 아닌 야사, 공공 이면의 뒷 이야기, 시시각각 움직이는 현장의 다양한 현상들을 모두 포착하여, 그곳에도 ‘사실 및 진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지배자 중심의 ‘지식’을 벗어나려는 자세로서, 지식의 다른 길, ‘진리를 찾는 다른 방식’이다. 우리의 앎의 방법이 우리의 지식을 제한한다는 역설을 참조한다면,⁴²⁾ 예를 들어 단선적 시간관에 입각한 진화론, 원인과 결과에 의한 과거-현재 구성,⁴³⁾ 이런 것들이 뒷받침 된 서구 근대화론 외에, 다른 지식의 길이 있을 수 있다. 서구-근대가 ‘사실’로 인정하지 않은 것 중 많은 것이 다른 시선으로 보면 ‘사실’일 수 있다.⁴⁴⁾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별건곤』이 기기묘묘하다고 한 ‘야화, 야사, 야담, 뒷 이야기, 자질구레한 습관들, 내면적 고통과 갈등,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는 사실들, 그 때문에 빚어지는 특이행동 등 개개인의 사생활은 모

41) 미셸 페로 외, 『사생활의 역사 5』, 새물결, 2006, 제1부 서문 참조. 이 책에서는 집단 심성을 변화시킨 요인과 관련하여 고찰하면서, 15세기 이래 ‘사회’는 세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명실상부한 광장역할을 하던 궁정사회/도시와 농촌의 민중층/새로운 사적 영역이 그것이다.(3, 19-22쪽) 이 책에서도 ‘새로운 사적 영역’을 ‘사회 범주로 설정하고 있다.

42) 존 브룸필드, 박영준 옮김, 『지식의 다른 길』, 양문, 2002, 25쪽.

43) 예를 들어 서구의 역사론은 인과론에 고착되어 있어,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들의 상호 영향을 설명하지 못한다.

44) 서양-기독교-백인-남자들의 역사 말고도 다양한 역사가 ‘사실’로 실재하고 있으나, 기록되지 않고 생략되어 있다. 김복순, 『만들어진 보편과 젠더화 된 근대미학』, 『페미니즘 미학과 보편성의 문제』, 소명출판, 2005, 서론, 참조.

두 ‘사실’로서, 역사를 장식하는 한 사건으로서 ‘의미있는’ 에피소드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또 다른 근대’를 창출하는 동인도 될 수 있다. 사생활을 하나의 ‘사회’ 영역으로 설정하고 그를 고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고투했던 『별건곤』은 식민지 조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행로를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잡지에 왕성한 문필을 자랑했던 천도교의 제1이론가이자 당대의 공인이었던 이 돈화의 호 ‘야뢰(夜雷)’가 천둥치듯 코를 너무 크게 고는 버릇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든가,⁴⁵⁾ 이광수가 허영숙의 의사로서의 능력을 별로 신뢰하지 않아 부부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⁴⁶⁾ 또 이광수는 외모가 출중해 꽤 인기를 끌자 허영숙이 노심초사 했다는 것,⁴⁷⁾ 경성이 완전히 예로화 되어 가고 있어 도색여성군을 빼면 여성이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라는 것⁴⁸⁾ 등은 일문일답 취재나 르뽀식 잠입취재로 드러난 사생활 양상, 즉 비화(秘話)들로서, 그 자체로 ‘사실’일 뿐만 아니라, 몰랐던 부분 이기에 재미를 자아내기 충분한 내용들이다. 예를 들어 보자. 야뢰에 대한 호설(號說)은 대 이론가라 해도 잠 버릇 등 일부 사생활은 고상하지 않을 수 있다는 비틀기 정신을 보여 준다. 또 이광수는 페미니스트라 불리 정도로 여성의 주체성을 강조한 사람이다. 하지만 위 에피소드를 통해 논설로, 연설로 웅변하던 이광수와는 아주 다른 모습을 확인하게 된다. 사생활로 인해 ‘대 계몽가 이광수’에 대한 ‘사실’ ‘진실’이 수정될 뿐만 아니라, 사기꾼일지 모른다는 혐의까지 추가되는 것이다. 사생활 지식은 이처럼 기존 지식을 해체·파괴하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다. 쓰잘데 없는 녂두리라든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의 차원을 훨씬 비껴나 있는 것

45) 『명사기담 전람회』, 28호(1930.5), 123쪽.

46) 허영숙, 『아내가 말하는 남편의 힘』, 33호(1930.10), 148쪽.

47) 『각인각색-이광수』, 2호(1927.12)

48) 『독감이 들린 문화, 씩어드는 이꼴 저꼴』, 71호(1934. 3), 17쪽.

이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별건곤』의 ‘새로운 사적 영역’ 방법은 1930년을 기준으로 전/후반이 다르다. 전반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계몽과 취미의 어정쩡한 결합’ 방식이었다면, 후반부는 계몽이 약화된 ‘에로 그로테로’ 추로 년센스’의 방식이었다. 후반부는 애로 섹션’ 등의 기획코너가 신설되는 등 황색화 되어 가는 양상을 완연히 보여준다.⁴⁹⁾ 전·후반기를 통틀어 애용된 방식은 년센스였다. 『별건곤』이 기획했던 잡지 차별화의 세 코드는 ‘취미, 실익, 사회풍자’였는데,⁵⁰⁾ 이중 풍자의 범주에 놓이는 ‘년센스’는 에로 그로 추로 테로⁵¹⁾와 다른 함의를 갖는다. ‘에로 그로 년센스’는 『개벽』과 『신여성』의 ‘은파리’ 코너에서도 소개된 바,⁵²⁾ 『별건곤』에서는 1927년경부터 소개되었고 1930년대에 이르면 『동광』 『삼천리』 『신동아』 등 거의 모든 신문·잡지를 뒤덮을 만큼 대유행하고 있었지만, ‘제국의 감각’⁵³⁾, 개인주의적 가치만 양산⁵⁴⁾하는 것으로 불

49) 1931년 이후 에로 그로 용어가 증가하기 시작하며, 1933년에 이르면 ‘에로’ ‘에로 섹션’ 등의 기획이 증설되고, 5월호부터는 목차에도 제시되기 시작한다. ‘년센스 실화집’의 경우도 ‘여성의 소비 차용되기 시작하며(37호, 1931.2), 이러한 현상은 뒤로 갈수록 심해진다. 42호(1931.8)에 ‘에로 그로 추로’ 기획이 실리고, 46호(1931.12)에는 ‘중국의 에로’가 소개된다. 53호(1932.7)에는 ‘여름의 환락경 해수욕장’이 소개되고, 55호(1931.9)에는 ‘홍등야화’, 63호(1933.4)에는 ‘돈 업시 오입하는 밥’ 등이 실린다.

50) 『투고대환영』, 창간호, 116쪽. 『별건곤』의 특징을 ‘취미’ ‘실익’ ‘사회풍자’로 요약하고 있다.

51) 테로는 테러를 의미하며, 추로(醜로)는 ‘너무 그 질이 저하되어 추잡한 것’을 의미한다. 『대경성 에고 그로 테로 추로 총출』, 42호(1931.8), 10쪽.

52) “開關 新女性으로 別乾坤에까지 繼續해 쓰든 天下의 注目거리 『銀파리』는 당분간 못 잊게 됩니다. 저기서 그리하라는 것이니 自意가 아닌 것만 아러 주십시오.” 『편집후언』, 7호, 168쪽.

53) 채석진은 ‘에로 그로 년센스’를 ‘문화적 식민화 과정, 제국주의 시선의 확산으로 본다. 『제국의 감각: 에로 그로 년센스』, 『페미니즘연구』 5, 2005, 참조.

54) 박숙자, 『1920년대 사생활의 공론화와 젠더화』, 『한국근대문학연구』 7권 1호, 2006, 181쪽.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에로 그로’가 소비문화의 발달이나 시각적 감각과 관련⁵⁵⁾되면서 1930년대 후반 ‘명랑화’⁵⁶⁾의 기반으로 작동했다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면, 풍자는 자본주의의 물질문화, 상품화로만은 볼 수 없다. 넌센스-풍자는 오히려 당대적 상황을 비꼬면서, 그것을 넘어서려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센스가 아닌’의 뜻인 넌센스는 상식을 벗어난 것으로서, 『별건곤』의 별학 사상인 ‘비상선’과 연관되어 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어처구니 없어서 우스운 것, 그럴 리 없어서 우스운 것이다. 『별건곤』은 상식과 비상식이 대조되면서 빚어지는 상호부조화를 넌센스-풍자로 표현한다. 또 때로는 ‘더 이상 아닌’(no more-not) 것에 대해 비꼬면서 접근하기도 하는데, 이때 식민지 조선의 고정관념이나 편견들은 비웃음을 당하는 공격적 대상이 된다. 따라서 넌센스-풍자를 무조건 통속적, 무비판적이라 비난해서는 곤란하다.

③ 현대인의 신경은 나날이 둔해 간다. 현대과학의 끊임없는 자극에 극도로 침해화 한 그들의 신경이 밝은 반동적 경향이리라. 이리하여 그들의 마음 한가운데는 어느새 부질없이 괴기를 찾는 일종의 엽기벽이 생겼다....(중략)...이러한 엽기풍은 경박한 양키들의 조변석화적으로 변전하는 유행심리만은 아니다. 항상 기형적 진로를 밟고 있는 터이라그들과는 생활이 엄청나게 다르건만 어느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러한 심리가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⁵⁷⁾

④ 〈가깝고도 먼 거리〉

남자의 추근추근한 꼴만 당하던 모던 아가씨. “하필 남 앞은 자리에 와서 바짝 붙어 앉을게 무어요. 참 우스워 죽겠네.”

“천만의 말씀이오. 염려 마십시오. 당신과 나와는 거리가 머외다.”⁵⁸⁾

55) 소래섭, 『에로 그로 넌센스』, 살림, 2005, 21쪽.

56) 소래섭, 『불온한 경성은 명랑하라』, 웅진 지식하우스, 2011, 참조.

57) 일 기자, 『거인 김부귀를 요리했소』, 32호(1930.9), 124쪽.

⑤ 〈고적인 룬펜〉

“년놈들! 팔자 좋다! 예기럴. 여기는 내 자린가!”⁵⁸⁾

③은 현대과학 발달에 따른 반동적 경향으로 엽기를 설명하면서 우리의 경우 더더욱 단순한 유행심리로 보아서는 곤란하다는 견해를 펼쳐 보이고 있다. ④와 ⑤는 만화로서, 『별건곤』은 중반 무렵부터 만화 등 일러스트레이션⁶⁰⁾을 즐겨 사용했는데, ④와 ⑤에서는 예로가 해체될 뿐 아니라 ⑤에서와 같이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 인텔리들의 백수의 탄식을 드러내면서 냉소주의와 함께 예로를 벗어난다.

이처럼 년센스-풍자라는 방법은 당대 사람들이 추구했던 감각인 동시에 그러한 감각들을 비웃고 공격하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때로는 예고 그로를 해체⁶¹⁾하면서, 민족적, 사회적, 경제적, 결핍감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장으로 작동⁶²⁾하였다. 이것이 『별건곤』이 사생활 영역을 만들어 내는 방식이자 『별건곤』의 심미성이다.

하지만 ‘년센스-풍자’마저 어려워진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별건곤』은 더 이상 ‘년센스-풍자’의 건강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황색화 되어 간다. 황색화는 1930년대 후반의 ‘명량화’의 기반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부정적 평가를 면키 어렵다.

58) 52호(1932.6), 16쪽.

59) 64호(1933.4), 26쪽.

60) 이들 만화는 시각성과 문학성 사이를 넘나드는 잡종 장르로서, 상호교차의 장소이다. 또 다른 잡종 장르로서는 『별건곤』이 만들어낸 ‘유모어소설’ ‘실화소설’ ‘야화소설’이 있다.

61) 소래섭, 『예로 그로 년센스』, 살림, 2005, 64쪽.

62) 권채린, 『산책을 둘러싼 대중 담화의 지형도』, 『어문연구』, 40권 2호, 2012 여름, 264쪽.

2-2. '시선의 스위핑'을 통한 혼종적 리얼리티의 생산

『별건곤』은 사회가 스스로 움직인다고 본다. 제2호에 실린 『대경성 백주 암행기』 리드 기사를 보면, “사회는 움직인다. 시시각각으로 움직인다. ‘대경성의 움직이는 현상을 박혀 모으라’고 강조한다.” 시시각각으로 움직이는 사회를 하나의 시선으로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선’은 일종의 가치창출 체계로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장치이다.⁶³⁾ 『별건곤』은 지배자의 시선을 거부하고, 非常線으로 접근하거나 ‘~~라면’ ‘~~드면’ 등의 가정법을 활용하여 새 세계를 창출하기도 하고, 몰래 잠행하여 들여다 보거나, 변장하여 다른 사람처럼 나타나기도 한다. 정면에서 주시하기보다 ‘국외자로서 보’거나⁶⁴⁾ ‘뒤로 보거나’⁶⁵⁾ ‘들창으로 들여다 보’기도 하고,⁶⁶⁾ 반대로 보거나(反作)⁶⁷⁾, ‘불구자’가 되어 보기도 하고,⁶⁸⁾ 가상으로 부부가 되어 보기도 한다.⁶⁹⁾ ‘~~라면’ ‘~~드면’ ‘100년 후엔’ 등의 가정법은 『별건곤』이 가장 의욕적으로 활용한 방식이다. 잡지 내용에 ‘스스로도 대만족’이라 고백한 2호⁷⁰⁾부터 시선과 관련

63) 김복순, 『페미니즘 미학과 보편성의 문제』, 소명출판, 2005.

64) 10호(1927.12), 101쪽.

65) 『뒤로 본 맵시 타령』, 64호(1933.5), 4-7쪽.

66) 『들창으로 들여다 본 이야기』, 65호(1933.9), 32-33쪽.

67) 풍류부, 『반작 춘향전』, 47호(1932.1), 40-42쪽.

68) 『불구자의 人世觀』, 47호(1932.1). 귀머거리, 맹인, 병어리, 내시 등을 등장시켜 사회상을 비판, 풍자하고 있다.

69) 26호(1930.2), 『가상 부부 지상 대 피로연』, 80쪽.

70) 『편집실방송』, 제2호, 154면; 『편집실방송』, 제3호, 130쪽. 창간호는 “창졸간에 내는다고 매우 잡지답지 못한 점이 많았”으나, 제2호는 “누가보던지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자평하고 있으며, 3호에서도 “제2호는 조선서 잡지가 생긴 후 처음 보았다”고 호평한다. 실제로 2호는 ‘별학’의 취지에 맞게 다양하게 꾸며져 있다. 창간호에서 개념화 한 ‘취미와 실익’ 잡지를 더 상세하게 세분화 하여 ‘사회풍자’를 넣어 개념화하고 있으며(『투고대환영』, 116쪽), 『각인각색』 코너도 1-5까지 윤치호, 이상재, 유진택, 최린, 최남선을 캐리커처 형식으로 쉽게 이미지 맵핑을 하여 보여 준다. 『각인각

한 용어가 제시된다. 칼럼 『팔면경』이아말로 『별건곤』의 ‘별학적’ 특징 중 하나인 시선의 다양성을 잘 보여 준다.

⑥ 顯微鏡은 작은 것을 크게 보고 望遠鏡은 먼 곳을 갖가옴게 보는 것이다. 體鏡은 몸둥이를 全體로 보는 것이오 面鏡은 다만 얼굴만 보는 것이다. 여기 나오는 八面鏡은 무엇을 보는 것인가. ...여기저기 八面으로 원 世上 事物을 빚쳐 볼 수 있다는 말이다.⁷¹⁾

즉 『별건곤』 크게 보거나 가깝게 보거나 어느 한 곳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8면으로 다양하게 보면서, 기존의 담론체계에 머물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인다. 시선을 지배하는 권력자들의 ‘눈’으로만 보지 않겠다는 뜻이 드러나 있다. 중간 때까지 유지되었던 ‘만화경’ 코너도 이를 반영하는 기획이라 할 수 있다.

5호 특집으로 마련된 『지하국탐방기』는 희생, 논개, 세종대왕, 정약용 등의 시선으로 당대 독자에게 말을 건다. 6호에서는 『내가 만일 그 일을 한다면』이란 기획을 마련하여 시선의 스와핑을 보여준다. 7호에서는 『드면錄』이란 특집을 제공하여 『김옥균의 변혁운동이 성공하였다면』, 『동학당이 정치적 훈련만 잇섯드면』, 『대원군이 외인 배척을 안했다면』의 가정법을 구사하여 당대 정치 경제 사회면에서의 구상을 밝힌다. “그 세에 이리 했드면 지금 조선은 어찌되었을까”란 물음을 던지는 것이다. 역사적 인물들 가운데 조선을 더욱 미약하게 만들었던 인물, 조선을 새롭게 개혁하려 했던 인물들을 재조명하여 조선 역사의 재구성을 꾀하고 있다. 사대주의와 의뢰사상의 장본인들을 ‘음험인물’로 규정하면서 토죄하는 8호의 기획 『역대음험인물토죄록』도 조선 역사의 재구성을 꾀하는

색』 코너와 함께 『路上의 人』이란 칼럼란도 마련해 놓고 있다.
71) 2호(1927.1), 123쪽.

일례로 볼 수 있다. 토죄에 동원된 인물로는 해동주자를 자칭했던 송시열, 살주매(殺主魅)·해현귀(害賢鬼)인 정도전, 조선 사회를 일으킨 유자광 등이 있다. 기본적으로 조선을 부정하는 관점 하에 조선 내부에서도 조선을 강건하게 만드는데 일조하지 못한 모든 요인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관은 자칫 식민사관의 범주에 포섭될 위험이 있지만, 『별건곤』의 역사인식은 위에서 보듯, 이와 달리 ‘비상선’으로서의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또 ‘반란’으로 규정되었던 역사적 사건들도 시선의 스와핑을 통하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역적놈, 죽일놈도 민중적 관점에서는 호걸아, 풍운아일 뿐⁷²⁾이라고 당차게 주장한다. 이러한 인식 하에 반역죄로 죽은 최영, 남이장군, 김덕령 등은 ‘신원’된다(9호). 또 『개작동국통감 수양대군의 아세아정복기』(8호)에서 수양대군으로 하여금 왕위찬탈에 머물게 아니라 남정북벌의 큰 꿈을 꾸기를 요구하기도 하고, 무학대사로 하여금 신 경성의 낮과 밤을 구경하게 하여 당대를 비판하기도 한다(9·10호). 무학대사는 “강산은 의구한데 왕손은 어대 갖단 말인가?”라면서 나라를 지키지 못한 것을 꾸짖는다.⁷³⁾ 가정법의 시선을 빌려 식민지 조선을 만든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동시에 그것을 넘어설 방법을 직·간접적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철학(자)을 소개할 때도 일정하게 반영된다. 키닉파로 일컬어지는 거지(걸인) 철학자,⁷⁴⁾ 곰보 철학(65호, 1933.6), 털보 철학(66호, 1933.7), 난쟁이 철학(67호, 1933.8·9), 똥똥보 철학(68호, 1933.10)은 ‘비모던 인물학’으로서 ‘모던’이라는 당대의 常線에 대한 ‘비틀기’ ‘거부’의

72) 차상찬, 『3만 대병으로 경성을 점령한 이괄 원수의 갖바반란기』, 3호(1927.3), 2쪽.

73) 9호(1928.1), 91쪽.

74) 8호(1927.12), 102쪽.

의미를 띠고 있다. 당대의 철학·사상으로는 식민지 조선을 돌파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7호에는 또 하나의 시선의 스와핑 코너가 있는데 『10년 誠勤하든 그 직업을 떠난다면』이란 기획코너이다. 갑자기 직장을 잃은 경우를 대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 9호에서는 『임시**되어본 기(記)』라는 특집에서 전당포 서사, 양조장 머슴, 자동차운전 조수, 사주쟁이가 되어 본다. 10호에서는 『내가 남자였으면 내가 여자였으면』 코너에서 각각은 서로를 비판하면서 원하는 이상형을 말하고 있다. 26호에서는 『내가 만일 **계에 있다면』이라 하여 다른 직업군에 대한 문제점 및 바라는 바를 소개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가상 부부 지상 대피로연』 같이 가상의 부부를 만들어, 요즘의 『우리 결혼했어요』와 같은 리얼 버라이어티 쇼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선의 스와핑은 ‘지방’도 새롭게 보게 한다. 여기서의 지방은 경성/지방의 이분법적 열등성의 지점이 아니라, 진귀한 풍모를 지닌, 경성과 다른 ‘차이가 있는’의 의미로 파악된다. 이때의 차이는 각 지방의 인정, 물태, 풍속의 차이 뿐 아니라 ‘독자’도 포함되어 있다.

⑦ 地方色! 이것은 地方讀者의 폐지로 맞겨둔다. 멋대로 있는대로 投稿하라. 13도 坊坊曲曲에는 가지각색의 이상한 風俗, 야릇한 習慣, 駭怪한 歷史傳説이 만홀 것이다. 人物도 좇타. 山水風景도 좇타. 風土物産도 좇타.⁷⁵⁾

위에서 지방은 열등성보다는 각각 독특한 풍속적 차이를 지닌 곳으로 인식코너를 기획한 의도에는 지방필자 확보의 의도도 드러나 있다. 하지만 필자 확보 뿐 아니라 “지방독자의 취미를 위해 금후로는 지방기사

75) 『투고환영』, 4호, 103쪽.

에 대한 것도 만히 취급하겠다”⁷⁶⁾는 언표를 볼 때 지방의 의미는 ‘차이’ 뿐 아니라 다각도의 포석을 위한 장치임이 확인된다. 본격적인 기획이 시작되는 2·3호 특집에서는 『조선 팔도 천태만상』이라 하여 탐문하는 형식으로 시작하여, 3호부터는 『지방색』이라는 기획코너를 마련하여 『설중 핑 산양』 등 각 지역의 생활상을 소개하였고, 32호(1930.9)에 이르면 『지방소개란』을 추가하면서 전격적으로 확대되기에 이른다. 여기서는 평양, 대구, 광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정치 경제 단체 인물 중심으로 기획되어 있으며, 『지방색』 코너는 풍속 놀이, 즉 문화 중심으로 재편된다.

시선과 관련하여 『별건곤』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확인되는 지점은 ‘대중의 시선의 발견’이다. 대중의 시선은 대중 독자 및 필자 이외에도 대중들의 직업 소개와 관련하여 확인된다. 직업관련 기사와 관련하여서도 『별건곤』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바, 듣도 보도 못하던 직업을 소개하면서 『별건곤』은 직업 ‘소개’보다 그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하층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구직의 어려움을 강조한다. 『진(珍)직업전람회』, 『현대진(珍)직업전람회』에서는 여태까지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직업군을 소개한다. 기존에 소개된 바 없는 ‘새로운’ 것을 찾는 잡지사의 관심도 작용하였지만, 살기 어려운 대중에 대한 동정적인 시선도 드러난다. ‘죽은 사람으로 버리 하는 사람(매장꾼)’, ‘뒤스간 지켜주고 먹는 사람(유료변소직이)’, ‘다리 파러 먹고 사는 사람(보행꾼)(4호)’, ‘뱀잡아 먹고 사는 사람’ ‘쭈드리고 사는 사람’ ‘새 잡아 먹고 사는 사람’ ‘똥으로 먹고 사는 사람’(6호) 등 하층민의 직업세계를 소개한 후 “이런 짓이라도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는 친구”들이라며 동정적 시선을 보낸다. 단순히 진귀, 기괴한 것만을 추구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76) 6호, 118쪽.

근대화 된 대도시 경성은 새로운 직업군으로 가시화되었는데, 이곳에 소개된 직종들은 모두 하층민과 관련된 것이었다. 도시 하층민들이 노동의 주체로서 겪는 어려움이 잘 묘사되어 있다.⁷⁷⁾ 대중의 시선의 발견은 『평신도의 수기』(6호), 『짓밟힌 정미 여직공의 속임없는 자백과 호소』(39호, 1931.4)에서도 발견되며, 시찰담의 경우에도 영웅 호걸, 혁명가, 재사, 문사 등의 지식인 뿐 아니라 상인, 농부, 어부, 백정 등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펼쳐 보인다.⁷⁸⁾ 『형평사 해소운동』(40호, 1931.5)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층민 민중의 시선을 차용하고 있다.

이와같은 다양한 시선은 혼종적 리얼리티를 창출한다. 시선의 다양화는 일면의 리얼리티를 거부하고, ‘사회’를 종합적으로 보게 한다. 기존의 ‘지식인의 시선’이 ‘권력화 된 지식’의 창구였다면, 『별건곤』은 ‘시선의 스와핑’을 통해 지배층보다 대중, 시민들의 시각을 보여줌으로써 시민사회 창출의 중요한 매개가 된다. ‘사회’범주가 ‘국가’범주를 대체하여 새로운 운동이 시작되는 1920년대 중반, 『별건곤』은 시선의 스와핑을 통한 다양한 주체의 발견 및 혼종적 리얼리티의 창출을 통해 다원적 시민사회를 꿈꾸고 있었다.

하지만 시선의 스와핑에 의해서도 여전히 공고히 남아 있는 영역은 젠더 범주였다. 경성/지방 및 직업적 경계는 상당히 해체되고 중심/주변으로 분리된 권력의 지형도도 다각도로 내파되었으나, 젠더 범주는 이와 달랐으며, 계급 범주도 때에 따라서는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었다.

77) 당대 지식인들의 구직난도 여러 차례 소개되어 있다. 미소생, 『구직자로 변신하여 직업을 구하러 가본 이야기』(4호) ; 김기진 외, 『졸업하고 취직하기까지』(5호) ; 『특집 『첫 수입 맞든 썸 이야기』』(20호) 등. 하지만 이들에 대한 내용은 구직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기보다 성공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78) 『천당지옥왕래기』, 6호(1927.8), 58-72쪽.

⑧ 그러나! 서울사람은 幸福스런 생활을 못 한다....(중략)... 그러타고 죽을 수는 업다. 억지로라도 살아나갈 '맛'을 차차내자! 樂園의 '서울'에 不幸한 '서울사람'이 허덕이게 되는 矛盾은 이에 指摘할 自由가 업거니와 서울사람이 살아나갈 愛着은 稀微하나마 希望에 있을 것이다.⁷⁹⁾

⑨ 그런즉 針線, 食事, 洗濯, 其他 全部 家政의 行事로써 生命을 삼는 舊女性과, 化粧, 散步, 雜談, 其他 全部 非家政의 行事로써 天職을 삼는 新女性과 어니 것이 現下 朝鮮 사람이 生活에 필요할가⁸⁰⁾

위에서는 자동차 전차 등 근대문물이 발달했음에도 여전히 살기 힘든 서울사람을 계급적 시각에서 동정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면, 아래의 예문에서는 신여성 및 그들의 삶을 비판하고 있다.⁸¹⁾ 『신여성』 휴간 후 이관하다시피 하여 기획란을 거의 매호 신고 있었음에도 그 기사들의 대부분은 '여성 계몽'에 있었지 '신여성 옹호'에 있지는 않았다. 오히려 일반 여성(대중, 민중, 무산계급)을 계몽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신여성들은 매도되었다. 허영숙, 김미리사 등이 소개되는 경우에도 '신여성'이란 측면보다 일찍 '계몽을 접한'의 의미로 더 차용되었다. 이처럼 『별건곤』에서 끝까지 공고히 남아 있던 영역은 젠더 범주였다.

하지만 젠더 범주가 공고히 남아 있었다고 하여 시선의 스와핑이 폄하되지는 않는다. 전체적으로 다른 잡지와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타인의 시선을 차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맛나기 전과 맛나본 후의 인상」⁸²⁾처럼 스스로의 편견을 배제하는 작업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79) 김과백, 「서울의 조흔 곳 낫본 곳」, 23호(1929.9), 49쪽.

80) 이동원, 「배운 여자는 일개 사치품」, 16·17호(1928.12), 96쪽.

81) 6명의 필자 중 신여성이 좋다고 말한 필자는 한 명으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였고, 나머지 필자들은 모두 신여성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 이성환은 신여성들이 7덕을 구비해야 한다고 하였고, 최규동은 신여자에게 2대 결점이 있다고 비판하였으며, 박춘파는 아예 '나는 구여성을 택하겠노라' 하였다. 「지상 토론 지상토론 현하 조선에서의 주부로는 여교출신이 나혼가 구여자가 나혼가」, 90-101쪽 참조.

이러한 『별건곤』의 노력은 시선의 단일화, 권력화를 벗어나 ‘혼종적 리얼리티 창출에 기여한다. 권력화 된 지식의 식민성에 균열을 내고, 사회적 정치적 관계의 수직적 양극적 개념에서 탈피하여 탈중심적이고 다원적인 개념으로의 이전을 꾀함으로써, 중심부와 주변부의 시선을 동시에 결합함으로써 다원적, 혼종적 리얼리티의 창출에 도달하게 된다. 에드워드 사이드의 ‘대위법적 방법’⁸³⁾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다. 시선의 스와핑에 의해 ‘관계들이 ‘교차’되면서 식민지 조선은 ‘식민 관계’ 뿐 아니라 다양한 내부의 관계들 속으로 확장되고, 단일성으로는 얻기 힘든 효용성을 얻게 되면서 ‘식민지 근대를 넘어서’는 방법적 도구로 기능하는 효과를 자아낼 수 있다.⁸⁴⁾

2-3. 죄담회의 창출과 상호주체성의 파트너십

『별건곤』의 공적 가운데 또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죄담회라는 새로운 담론형식을 창출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별건곤』은 일본에서 새롭게 대두하여 유행하기 시작한 죄담회라는 담론형

82) 3호, 11호.

83) 사이드는 제인 오스킨, 샬롯 브론테, 찰스 디킨스와 같은 소설가들의 작품 내의 공백이나 침묵을 읽을 때, 그것을 영국적 맥락 속에서만 읽는 것은 곤란하며, 오히려 19세기 영국 제국주의가 낳은 제국과 식민 간의 대위법적 관계 속에서 읽어야 그 의미가 제대로 파악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중심부 작가들도 제국주의의 문화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제국의 인식적 맹점을 재생산한다는 것이다. 『문화와 제국주의』, 참조.

84) ‘낙서’도 『별건곤』이 만든 ‘혼종장르’중 하나이다. 유모어 소설이란 장르 외에 『별건곤』은 낙서의 의미미성도 발견한다. 초기에는 「편집실여언」, 「편집실방송」 등으로 불리던 란이 중반부터 「낙서통신」으로 명칭을 바꾼다. 지배자를 교체할 수 없을 때 시사적인 유머, 낙서는 그 지배자를 풍자한다. 네스토르 가르시아, 『혼종문화-근대성 넘나들기 전략』, 그린비, 2011, 406-425쪽, 참조.

식을 식민지 조선에 처음으로 정리해 준 바 있다.

⑩ 일본서 雜誌 販賣政策으로 한 새 굉장하게들 座談會가 퍼지드니 인제는 이 바람이 連絡船을 타고 조선까지 건너온 모양이다. 소위 名士인지 鳴士인지 한 사람들의 성함을 그세당당하게 주욱 내걸고 하로밤 스끼야끼를 지지고 모아 안저서 주고 맞고한 座談의 결과가 잇튼날 쏘는 다음달 活字로 낫하난다. 量으로 보아 펍 有效하고 便利한 方法이리라.⁸⁵⁾

좌담회의 여러 특징들이 소개되어 있다. 우선 좌담회라는 것이 술자리 담화처럼 모여서 이야기한 결과라는 것, 유효하고 편리한 방법이라는 것, 일본에서 건너온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별건곤』이 좌담회를 선보인 것은 1927년 1월호인 3호에서부터이다. 제목은 『조선에서 활동하는 해외에서 도라온 인물평판기』라 하여 ‘좌담회’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있지는 않지만, 서두의 소개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모두 좌담회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일본에서 좌담회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1차 다이쇼기(1911-26)를 거쳐 쇼와(1926-) 사이의 이행기⁸⁶⁾라고 할 때, 『별건곤』이 좌담회를 선보인 것이 1927년 1월인 점은 일본과 거의 동시대성을 보이는 것이다.

또 『여류 명사의 가정문제 합평회기를 읽고』 『경성 각 상점 진열창 품평회』(4호), 『해내해외에 헛허저 잇는 조선여의사 평판기』(5호), 『일문 일답 신일선양과의 문답기』(7호), 『18세 처녀 비행가 이정희양과의 일문 일답기』(11호), 『조선일보 여기자 최은희씨와의 회담기』(8호), 『만국품평회 대논쟁기』(12·13합호), 『경성중등학교 교장부인방문기』(14호)에서 보듯 좌담회의 전신은 합평회·품평회, 문답체의 2종류였다. 이는 일

85) 『모던 북덕방: 좌담회의 대유행』, 26호, 91쪽.

86) 신지영, 『부/재의 시대』, 소명출판, 2012.

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⁸⁷⁾ 일본이 전신자라 볼 수 없는 부분이다. 『별건곤』에서는 이외에도 1호에서부터 대화체를 전격적으로 활용한다.⁸⁸⁾ 『암실영가』는 『여론』사 편집실의 일일생활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으나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다. 『무학대사 신 경성 구경』(9-10호)도 대화체로 되어 있다. 하지만 품평회, 토론회라 하여 모두 좌담회 형식을 취하였던 것은 아니다. 『모던 썸 모던 썸-이 大討論』(10호), 『男女 痛罵 誌上 大論戰』(8호), 『八道 女子 살남사리 評判記』(16·7호) 등에서는 토론체 형식을 취하고 있다. 아직 좌담 형식이 정착하는 과정임을 반증해 주는 사례라 볼 수 있다.

좌담회라는 특집명을 제시한 것은 1930년에 들면서이다. 이때는 앞서도 언급한 바 국내에서 최초로 『별건곤』이 ‘좌담’이라는 형식을 정리한 시점이다. 이후 『大大諷刺 新春 誌上 座談會』(26호, 1930.2), 『誌上 移動 座談會』(28호, 1930.5), 『不景氣 檢討 大座談會』(35호, 1930.12), 『년센스 本位 無題目 座談會』(36호, 1931.1), 『水利組合은 왜 破綻되나, 農村座談會』(47호, 1932.1), 『中日衝突 中國人 移動座談會』(48호, 1932.2), 『米價 問題 農廳 座談會』(57호, 1932.11), 『新春 誌上 特色人物 내 자랑 座談會』(60호, 1933.1) 『各界 男女 逢變 座談會』(65호, 1933.6), 『新幹會 解消 特輯 座談會』(37호, 1931.2), 『抱腹絶倒 八道 사투리 座談會』(66호, 1933.10) 등이 실렸다.

『별건곤』이 파악한 좌담회란

87) 鶴見太郎, 『座談의 思想』, 新潮社, 2014, p.23-24. 형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느 한 사람은 반드시 좌담 참여자 중 한 사람에게 질문하게 된다는 점에서 좌담회의 전신은 문답체라 볼 수 있다. 문답체의 연원은 불교의 법륜으로 파악되었는데 답변에 대해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경우와 질문자가 자신의 의견을 우위에서 결론으로 이끄는 두 경우로 나누어진다.

88) 연재물 『서왕모』의 경우 초기에는 논술체로 되어 있었으나 차차 대화체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⑪ 在來의 건조무미한 一人一文式의 인터뷰記事보담은 形式과 內容에 있어서 斬新한 맛이 있어 보인다. 乍러서 讀者의 興味도 만히 끌엇을 것이다. 사실 會話體의 文體는 記述體의 文體보담 읽는 사람으로 하여곰 멋있거나 實感을 가지게 한다.(중략)....

座談會라는 것은 무엇보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會話가 짧고도 要領이 있어서야 한다. 짧고도 要領 있는 말이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의 입에서 각각 意 見 껏 쏘다저 나오면서도 그 중에 統一이 있어서야 한다. ... (중략).. 座談會라는 것이 무엇을 決議하러 함이 아니라 各界 사람의 意 見을 民衆의 압 へ 提 供하는 任 務에 긋 치는 것임으로.⁸⁹⁾

⑫ 〈인기인물과의 독자 지상 좌담회〉

현재 조선에 있어서 인기(人氣) 있는 인물--다시말하면 공공한 사업으로나 는 개인적 기능으로나 명명과 명성이 높흔 사람--들에게 대하여 우리 별건곤 독자 여러분은 반듯이

- 一, 물어보고 심흔 말이나
- 一, 질문하고 심흔 말이나
- 一, 부탁하고 심흔 말이나

잇을 것임니다.(중략)..이를 한테 모아 가지고 별건곤 기자가 여러분을 대 포하여 그 인물을 차저 가서 그의 答 答을 들어다가 다시 별건곤에 발표하는 것이 즉 『인기인물』과의 독자지상 좌담회임니다.⁹⁰⁾

⑪에서 드러나는 좌담회의 내용, 형식적 특징은 인터뷰보다 참신한 맛이 있다, 독자의 흥미를 끄는 형식이다, 기술체의 문체보다 실감을 가지게 한다, 좌담 참여자의 발언은 짧고 요령이 있어야 한다, 여러 의견 들이 도출되되 통일이 있어야 한다, 결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 을 제공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위의 좌담회 목록 중 『大大諷刺 新春 誌上 座談會』, 『년센스 本位 無 題目 座談會』, 『各界 男女 逢變 座談會』, 『抱腹絶倒 八道 사투리 座談

89) 와담생, 『三新聞 座談會 漫評』, 26호(1930.2), 92-93쪽.

90) 65호(1933.9), 광고, 11쪽.

會』는 나머지의 좌담회와 달리 주최측과 참여자측도 분리되어 있지 않고 소제목 처리도 되어 있지 않은, 대화체로 되어 있다. 즉 오늘 날 우리가 보는 좌담회와 같은 형식과 대화체의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다. 앞의 것은 ‘계몽적 좌담회’로, 뒤의 것은 ‘취미적 좌담회’라 할 수 있다. 즉 좌담회는 두 가지 형태로 분리되어 있어, 내용에 따른 형식적 차이를 보여 준다. 이는 『별건곤』의 좌담회 인식이 아직 확고하게 정착되지 않은 단계임을 확인시켜 준다.

실제로 좌담회는 특정 1인이 필자가 되어 기술체로 서술하는 것과 달리,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주체성을 갖는다. ⑫처럼 독자들의 질문을 대신 받아주는 것일 뿐 실제 좌담회 참여자는 여러 명이다. 복수의 인물들을 등장시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하게 하며, 여러 명의 ‘나’가 존재하여 특정인이 지배권력을 갖기 어렵다. 좌담회는 원래 이질적인 세계관, 즉 의견의 ‘대립’ ‘대치’ 구조를 기본적으로 갖는 ‘대치하는 장’이다. 이질적인 세계관이나 이데올로기가 도래했을 때 또는 이와 유사한 긴박한 상황이 도래한 시점에서 행해진다. 의견이 상이한 사람들이 모여 때로는 서로 합의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가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펴는지 가늠하는 장이기도 하다. 좌담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의견(주장, 이론)이 유형화 되지 않는다. 의견이 대치되긴 하지만 각 의견이 지닌 약점이 공격되고 이를 수용하게 됨으로써 글쓰기에서와 같이 유형화 된 의견으로 남기 어려워진다. 또 좌충우돌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제시되기도 한다. 이때 독자는 특정 필자에 의한 글쓰기에서처럼 필자의 주장에 가/부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주장을 들으며 서로 비교해 보는 다양성 속에 놓이게 된다. 즉 좌담회는 ‘사회적 선’ 및 지식 재생산을 향한 ‘다양(원)성 창출’의 장이며, 독자로 하여금 비교 판단을 통해 상호주체성을 갖도록 유도하는 장이 된다. 좌담회 참여 논자들 간

의 상호주체성 뿐 아니라 독자와 좌담회 참여자 사이에서도 상호주체성이 창출되는 것이다. 즉 참석자들 사이에서 뿐 아니라 주최측과 독자 사이에서도 상호주체성의 확보된다. 다양한 대중을 독자층으로 포섭하면서 혼종적 리얼리티를 창출하고자 했던 『별건곤』의 다원적 사회를 위한 노력은 이처럼 좌담회라는 형식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이며, 식민지 조선에서 그 어떤 매체보다도 일찍 이를 정착시켜 나갔던 선구성을 갖는다. 그렇기에 『별건곤』에서의 좌담회는 ‘출판자본주의 고도화에 따른 판매정책에 호응한 담론양식’으로만 볼 수 없다.

『不景氣 檢討 大座談會』(35호, 1930.12)를 예로 들어 보자. 이 좌담회 기사는 21세기 현재의 잡지들이 활용하는 좌담회 형식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제목과 부제목(이 불경기는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인가?)이 가로 세로로 제시되고, 출석자와 본사측 인물을 박스로 소개한 후 논의 주제가 바뀔 때마다 소제목을 붙여 보기 편하게 유도하고 있으며, ‘(裴, 徐 兩氏를 가리키며)’, ‘(兩氏微笑不答)’ 등 참석자들의 발언 중간중간에 장내 상황을 친절하게 보여 주기 위해 참석자들의 반응도 소개해 준다. 본사측에서는 차상찬, 채만식, 박노아가 기자로 참석하였으며, 출석자로는 동아일보 경제부장 서춘, 조선일보 경제부장 배성룡, 보성전문교수 홍성하, 연희전문교수 손태조가 참여하였다. 불경기의 원인, 조선과 일본의 흥풍관계, 공황이 조선에 미치는 영향, 산미정책의 의도 당국의 불경기 대책, 불경기의 전망 등에 대해 토론한다. 먼저 기자가 참석자 중 한 사람에게 질문하자 전문가들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자신들의 견해를 발표하는데,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 나오는가 싶으면 기자가 개입하여 독자들이 알기 쉽게 풀어달라고 주문하기도 하고, 참석자들의 경우 혼자 발언을 독차지 하지 않고 좀더 적절한 발언을 할 사람에게 서로 양보하기도 한다. 또 좀더 부연설명할 것이 있

다거나 의견을 달리 개진하려 할 경우,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 ‘홍선생의 말씀과 가티’ ‘그렇치요’와 같이 의견이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호명하면서 의견 일치 여부를 확인시킨 후 부연설명 하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주최측이라 해도 상하 권력관계 속에 있지 않다. 의견배분도 동등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서로 동등하게 파트너십을 구가하고 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강조하면서 배려를 멈추지 않는다. 불경기 대책으로는 장단기로 여러 가지가 논의되었다. 산업합리화, 당국의 적극적 일자리 창출, 산미증식 중지, 일본 정부의 민간 구제사업 등 여러 의견이 나왔으나 ‘결국 근본적 모순을 제기하기 전에는 엇더한 정책을 써도 병근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란 내용에 동의하면서 끝을 맺는다. 어느 한 사람의 방안으로 귀결시키지 않고, 즉 특정인의 권력화를 도모하지 않고, ‘근본 원인’이라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으로 끝을 맺음으로써 상호주체적 파트너십을 구가하고 있다.

상호주체적 파트너십이 가장 혁혁히 드러나는 부분은 가상의 인물을 등장시킨다든지, ‘이동좌담회’라는 독특한 형식을 만들어내는 지점이다. 가령 『년센스 本位 無題目 座談會』(36호, 1931.1)에서는 새로운 직업군들을 가상으로 등장시켜 당대의 문화적 풍경들에 대해 풍자하며 비판하는 기회를 부여한다. 또 『水利組合은 왜 破綻되나, 農村座談會』(47호, 1932.1)에서는 박, 김, 이 등의 농민들을 가장적으로 구성하여 산미증산 계획의 일환인 수리조합을 비판한다. 이러한 가상인물 설정은 앞서 살펴본 바, ‘가상 부부 대피로연’에서처럼 일종의 리얼버라이어티쇼 효과를 갖는다. 이들은 “쫓소” “웁소 웁소”⁹¹⁾ 등 추임새를 넣으며 다른 참석자의 발언에 동의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미가 문제 농청 좌담회』에서는 지식인 수보다 많은 농군 5-6명을 가상의 참석자로 등장시켜, 실정

91) 47호(1932.1), 8쪽.

잘 모르는 지식인을 비웃기도 하며 놀리기도 한다. “허! 그 사람이 그래도 곳 고집을 하네 그러.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근래는 더 미련해”⁹²⁾ “재는 저러케 정신업는 소리를 각금해.”⁹³⁾와 같이 지식인으로 하여금 지식인 비판에 앞장서게 한다. 이런 지식인 비판은 하층(농군)에 의해 상층(지식인)이 재구분되는 지점이다. 쌀값이야말로 현장에 잇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르다는 설정에 입각해 있으나, 농군에게서 개인성을 거세하고 ‘일동’으로 처리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동좌담회는 이러한 가상 인물을 등장시키는 형식으로 설정되었다. 『誌上 移動 座談會 諧謔 속에 實情, 東亞日報를 中心으로 송진우 이광수씨를 붓잡고』(28호, 1930.5)는 기자들에게 이런 저런 역할을 주고 두 사람을 인터뷰 하는 방식으로, “독자 제군 이런 좌담회도 구경했소?”라고 묻기까지 한다. 『중국어 이동 좌담회』는 ‘그들이 본 일중(日中)충돌’이란 부제가 붙어 있다. 앞의 좌담회가 특정 직업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여기서는 등장인물 5명의 직업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전도사, 만두집 2, 요리점, 목수, 호떡집이 모여 만보산 사건 이후 중일전쟁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사람이 얼마나 꺾진해졌는가를 실감나게 토로한다.

‘이동좌담회’란 앞절에서 검토한 바, 다름아닌 ‘시선의 스와핑’을 의미한다. 수리조합, 미가 문제 좌담회에서는 가상인물을 ‘일동’ 형식으로 등장시키는데 그쳤다면, 여기서는 그 형식을 ‘이동’좌담회라 명명하고 있는 것이다. 지식인 전문가들이 참여한 경우에 비해 내용의 전문성은 현저하게 떨어지지만, 대중을 동원하여 그들의 견해를 소개한다는 기획의도에는 충분히 성공하고 있다. 또 대중들의 삶과 밀접한 탈춤의 가락까지 동원해 사설하는 등 재미있게 만드는 데 성공하고 있다. 개벽사측도

92) 57호(1932.11), 18쪽.

93) 57호(1932.11), 20쪽.

좌담회를 “취미기사로 일독”⁹⁴⁾할 것을 권하고 있을 정도이다. 초기에는 재계의 거물이나 지식인 등이 참여하였지만 『년센스 본위 무제목 좌담회』처럼 기자들끼리 모여 몇 개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중국인 이동 좌담회처럼 아예 대중들만 등장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런 경우 오락성이 증진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별건곤』에서와 같은 좌담회를 그 이후에 본 적이 없다는 점에서 『별건곤』의 좌담회를 통한 상호주체성의 파트너십 창출은 높이 평가될 필요가 있다.

3. '계급운동 취미 버전'의 공과

우리나라에서 사생활이란 용어가 본격적으로 언급된 것은 언제였을까. 『별건곤』은 사생활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 내포 및 외연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잡지사상 제일 먼저 이론화 하고 다양한 기획을 펼쳐 보인 잡지였다. 『삼천리』보다 앞서 이러한 작업을 꿈꾸고 광범위하게 실천하였다.

계급운동의 활로가 막힌 1920년대 중반, 경성이 근대도시로 탈바꿈하여 진기하고 낮은 불거리로 의미화 되기 시작한 이 시기에 취미잡지를 표방하고 나선 『별건곤』은 다원적 시민사회를 구상하는 여러 기획들을 제시한다. 천도교 청년당 핵심인물에 의해 간행된 『별건곤』은 ‘잡학’에 머물지 않고 비상(非常)적 지식·학문체계를 의미하는 ‘별학’의 탄생을 보여 주었다. 별학은 민중성, 대중성, 시민성, 개인, 개성, 문화, 사생활 등을 키워드로 하는 새로운 관점의 지식·담론체계였다.

『별건곤』의 공적 가운데 하나는 ‘취미 인간’을 발견하고 지식개념을

94) 『편집나서』, 37호(1931.2)

확장했다는 점이다. 취미 인간(호모 테이스트쿠스)의 발견은, 기존의 역사에서는 지배/피지배관계로 전환되고 언제나 권력의 근원으로 기능했던 '차이'를 개별성, 개체성, 개성으로 치환하는 매개였다. 『별건곤』은 하층사회를 내부에서 포섭하여 가시화 하면서 '외부'를 배제하지 않았다. '또 다른 세상-다원적 시민사회'를 만들려는 『별건곤』은 안잡자기, 여직공, 기생, 차부, 요리업자, 신문배달부, 전차감독, 점원 등 대도시 하층계급 시민을 호명하여 그들을 사회구성원으로 위치시키면서 소통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노력에 의해 이들 하층계급들은 글쓰기·말하기의 '대상'에서 소통의 '주체'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하층'으로부터 '상층'이 '재구분' 되었으며, 하층의 동의 하에 대중시민사회의 공론장이 마련되고 있었다. '지식인-권력화'라는 일원적 체계가 아니라 대중, 하층계급들이 지식인과 함께 동참하는 '다원적' 체계였다. 식민지 조선의 '국민' 주체는 별학 사상에 의해, 단일한 국민 주체에서 비균일적이고 계층의 복잡한 행위성이 전제되는 '취미 인간' 주체로 변환되었다. 국민 주체가 '집단'의 이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취미 인간'은 개인·개체가 주목·부각되고 있었던 것이다.

반식민지인 중국이 '잡학'으로 분과학문-서양 문명체계를 벗어나려는 의도를 가시화 했다면, 식민지 조선은 '개별성'에 기초한 취미론으로 하층계급을 시민 주체화 하고자 하였다. 개별성으로 식민지를 돌파하기는 어렵지만, 실력양성론처럼 '결과적으로 투항의 논리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취미 인간-개별성'으로 접근하면 일본이건 조선이건 중국이건 각 나라의 개인은 더 이상 '우/열'이 아닌, '보편적 인간' 범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식민성을 부정하는 것이었고, 적어도 투항의 논리는 아니었다.

식민지 조선에서 취미는, 일본에서와 같이 소위 '미쓰코시 취미'라는 단어에서 보듯 '백화점이라는 소비의 장'으로 수렴되지 않았다. 연이은

‘조선자랑’ 특집에서 보듯 ‘문화투쟁(자본)’의 의미로 전략화 되어 미약하나마 식민지 조선의 간접적인 저항의 장으로 수렴되었다. 이는 한국의 특수성이다.

사생활 영역은 『별건곤』이 만들어낸 새로운 ‘사회’ 영역이다. 공적 영역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적 영역의 탄생’을 의미하며, 이는 『별건곤』의 공적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 되었다. ‘사생활’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각 사회마다 다르지만, ‘유일’ ‘무이’의 잡지 『별건곤』이 ‘사생활’을 만드는 방식은 이처럼 지식 범주로 자리매김하면서, ‘새로운 사회’로 위치시키는 방식이었다.

『별건곤』이 사생활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1930년경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바, 전반부가 ‘계몽과 취미의 어정쩡한 결합’ 방식이었다면, 후반부는 계몽이 약화된 ‘에로 그로 테로 추로 년센스’의 방식이었다. 전·후반을 통틀어 애용된 기법은 년센스였다. 『별건곤』이 기획했던 잡지 차별화의 세 코드는 ‘취미, 실익, 사회풍자’였다. ‘에로 그로’가 소비문화의 발달이나 시각적 감각과 관련되면서 1930년대 후반의 ‘명랑화(제국의 감각)’의 기반으로 작동했다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면, 년센스-풍자는 자본주의의 물질문화·상품화, ‘제국의 감각’으로만은 볼 수 없다. 에고 그로를 해체하면서, 민족적, 사회적, 경제적 결핍감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장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별건곤』이 사생활 영역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자 『별건곤』의 심미성이었다. 하지만 김열 등으로 ‘년센스-풍자’마저 어려워지는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별건곤』은 더 이상 ‘년센스-풍자’의 건강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황색화 되어 간다는 점에서 부정적 평가를 면키 어렵다.

별학 사상은 또한 다양한 시선을 차용하여 혼종적 리얼리티를 창출해 내었다. 시선의 다양화는 일면적 리얼리티를 거부하고, ‘사회’를 종합적

으로 보게 하였으며, '시선의 스와핑'을 통해 지식인보다 대중, 시민들의 시각을 보여줌으로써 시민사회 창출의 중요한 매개가 되었다. '사회' 범주가 '국가' 범주를 대체하여 새로운 운동이 시작되는 1920년대 중반 『별건곤』은 시선의 스와핑을 통한 다양한 시선의 발견 및 혼종적 리얼리티의 창출을 통해 다원적 시민사회를 꿈꾸고 있었다. '권력화 된 지식'의 식민성에 균열을 내고, 사회적 정치적 관계의 수직적 양극적 개념에서 탈피하여 탈중심적이고 다원적인 개념으로의 이전을 꾀함으로써, 중심부와 주변부의 시선을 동시에 결합함으로써 다원적, 혼종적 리얼리티의 창출에 도달하게 된다.

별학 사상은 또한 좌담회라는 새로운 담론형식을 창출하여 상호주체성의 파트너십을 보여 주었다. 좌담회는 이질적인 세계관이나 이데올로기가 도래했을 때 또는 이와 유사한 긴박한 상황이 도래한 시점에서 행해지는데, 인터뷰와 달리 여러 사람의 다양한 주장을 비교해 보면서 '사회적 선' 및 지식의 재생산을 향한 '다양(원)성'을 창출하는 장이다. 좌담회 참여 논자들 간의 상호주체성 뿐 아니라 독자와 좌담회 참여자 사이에서도 상호주체성이 창출된다. 다양한 대중을 독자층으로 포섭하면서 대중의 리터러시 기준을 변경시켰을 뿐 아니라 혼종적 리얼리티를 창출하고자 했다. 『별건곤』은 식민지 조선에서 그 어떤 매체보다도 이를 일찍 정착시켜 나간 선구성을 갖는다. 이동좌담회 형식과 같은 좌담회를 그 이후에도 본 적이 없다는 점에서 『별건곤』의 좌담회를 통한 상호주체성의 파트너십의 창출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

남은 과제들이 있다면 '사생활의 역사를 기대해 보는 일이다. 『별건곤』 이후 『삼천리』 등에서 사생활의 구체 내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추적·검토하면서, 개개인에 대한 호기심에서 가정생활 등으로 이어지는 사생활의 전개과정을 물적 토대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각 시기

의 물질 토대의 구체상과 함께 유교사상 등 타 사상과의 길항관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민족·계급·젠더·종교·사회 등의 범주가 어떻게 경합하는지도 아울러 검토해 보아야 한다. 안타깝지만 다음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1. 자료

『별건곤 1-14』(1926-1934), 역락(영인본), 2008.

2. 단행본 및 논문

- 권채린, 『산책을 둘러싼 대중담화의 지형도-별건곤의 경우』, 『어문연구』 40권 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2, 245~272쪽.
- 김복순, 『만들어진 보편과 젠더화 된 근대미학』, 『페미니즘 미학과 보편성의 문제』, 소명출판, 2005, 15~25쪽.
- 김복순, 『페미니즘 시학과 리얼리티의 문제』, 『현대소설연구』 32, 한국현대소설학회, 2006, 243~282쪽.
- 김복순, 『근대초기 여성교양의 성립과 파트너십 문화론의 계보』, 『여성문학연구』 17,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117~223쪽.
- 김수진, 『취미 기사와 신여성』, 『사회와 역사』 75집, 한국사회사학회, 2007, 115~150쪽.
- 김용규, 『혼중문화론』, 소명출판, 2013.
- 김진량, 『근대잡지 『별건곤』의 취미담론과 글쓰기의 특성』, 『어문학』 제88집, 한국어문학회, 2005, 331~352쪽.
- 김현주, 『사회의 발견』, 소명출판, 2014.
- 문경연, 『식민지 근대와 취미 개념의 형성』, 『개념과 소통』 7호,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2011, 35~71쪽.
- 박숙자, 『1920년대 사생활의 공론화와 젠더화』, 『한국근대문학연구』 7권 1호, 한국근대문학학회, 2006, 179~198쪽.
- 소래섭, 『에로 그로 년센스』, 살림, 2005.
- 소래섭, 『불온한 경성은 명망하라』, 웅진 지식하우스, 2011.
- 신지영, 『부/재의 시대-근대계몽기 및 식민지기 조선의 연설·좌담회』, 소명출판, 2012.
- 오선영, 『대중소설의 유행과 장르 분화』, 『문창어문논집』 46, 문창어문학회, 119~144쪽.
- 이경돈, 『『별건곤』과 근대 취미독물』, 『대동문화연구』 제46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49~287쪽.
- 이경옥, 『민족담론과 취미담론의 관계성 연구』, 광운대 석사논문, 2009, 1~73쪽

- 이승윤, 『「근대 대중지 역사 수용 방식과 글쓰기」, 『한국문학논총』 제56집, 한국문학회, 2010, 5~35쪽.
- 조남현, 『이돈화 사상의 형성과 전개』, 『시대정신에 합일된 사람성주의』, 범우, 2007, 514~544쪽.
- 조미희, 『「별건곤」의 직업관련 기사와 그 특성』, 『한국언어문화』 41집,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0, 33~58쪽.
- 채석진, 『제국의 감각: 에로 그로 년센스』, 2005, 43~87쪽.
- 천정환 · 이용남, 『근대적 대중문화의 발전과 취미』, 『민족문화사연구』 30집, 민족문화사학회, 2006, 227~265쪽.
- 허수, 『이돈화연구』, 역사비평사, 2011.
- 홍준형, 『周作人の '잡학'과 지식의 통섭』, 『중국문화연구』 18집, 중국문화연구학회, 2011, 197~224쪽.
- 사이토 준이치, 윤대석 외 옮김, 『민주적 공공성』, 이음, 2009.
- 쑤위, 『루쉰과 지우쭈어런』, 소명출판, 2005.
- 진노 유키, 문경연 옮김, 『취미의 탄생: 백화점이 만든 테이스트』, 소명출판, 2008.
- 네스토르 가르시아, 『혼중문화-근대성 넘나들기 전략』, 그린비, 2011.
- 조르주 뒤비 · 필립 아리에스 편, 『사생활의 역사 1-5』, 새물결, 2002-2006.
- 존 브룸필드, 박영준 옮김, 『지식의 다른 길』, 양문, 2002.
- 荻野昌利, 『視線の歴史』, 世界思想史, 2004.
- 鶴見太郎, 『座談の思想』, 新潮社, 2014.
- Harding S. · Hintikka M., *Discovering Reality*, D.Reidel P.C., 1983.

Abstract

Establishment of Byul-Hak and the Plan of Pluralistic Civil Society
: focusing on 『Byeolgeongon(別乾坤)』

Kim, Bok-Soon(Myongji University)

『Byeolgeongon』 showed establishment of Byul-Hak that means aberrational knowledge and academic system. Byul-Hak is a knowledge and discourse systems of a new perspective of keyword of people, popularity, citizenship, individuality, culture and private life.

By thought of Byul-Hak, “national” subject of colonial Korea was converted to subject of “Homo-Tastekus”.

Private life is a new “social” ares, was created by 『Byeolgeongon』. It means “birth of a new public sphere”, which was a great achievement of 『Byeolgeongon』. The way of 『Byeolgeongon』 to make “private life” was a way in which positioned in the category of knowledge as “private life”, and was located in the ‘new society’.

Hybrid realities by borrowing the swapping of viewing were created by the thoughts of Byul-Hak. And the round-table discussion was a format that corresponds to this.

(Key Words : Byul-Hak(別學), Jap-Hak(雜學), Homo-Tastekus, Private life, swapping of viewing, round-table discussion, hybrid reality, mutual subjectness, partnership, Youth Party of Cheondoism(天道教 青年黨)

투고일 : 2014년 2월 27일 투고
심사일 : 2014년 3월 05-28일 심사
수정보완일 : 2014년 4월 3일 수정제출
게재확정일 : 2014년 4월 11일 게재확정